

## 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 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

김지현†                      민경환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수용을 포함하는 죽음 태도와 죽음에 대처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기효능감인 죽음 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따라서 성별, 연령, 건강, 경제, 종교, 교육수준 등의 인구학적 변인과 성격 변인 및 낙관성, 인생만족감, 우울, 자살충동, 자아통합감 등의 적응 지표를 포괄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연구에 포함하여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 대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죽음 대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96명의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수용 및 죽음 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한 결과, 인구학적 변인 중에서는 성별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죽음 태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고 의향성과 성실성과 같은 성격 변인, 자존감 및 노년기 자아통합감이 죽음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과 종교 유무, 독거 여부, 배우자와의 사별 등의 집단 특성에 따라서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한편, 인구학적 변인, 성격 변인 및 자아통합감을 포함하는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 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죽음 공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은 경제 수준이었고 성실성과 같은 성격 변인은 노년기 죽음 수용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변인, 성격 및 자아통합감을 포함하는 모델은 노년기 죽음 대처 유능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며 약 30%의 변산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죽음에 대한 태도는 노년기의 죽음 대처 유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약 22.9%의 변산성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자아통합감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통하여 죽음 대처 유능감을 증진하는 것이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적응을 돕는 방법일 수 있다는 본 연구의 제안과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 및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죽음 태도, 죽음 공포, 죽음 수용, 죽음 대처 유능감, 자아통합감, 성격 변인, 인구학적 변인

죽음 태도(death attitude)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와 죽음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를 모두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며 죽음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 신념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연구 주제이다.

† 교신저자: 김지현, (200-70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번지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E-mail: jenny10@snu.ac.kr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면 죽음 공포(fear of death)는 노년기에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Cicirelli, 1997; Mullins & Lopez, 1982; Tobin, 1996).

Epting과 Neimeyer(1984)는 개인이 죽음에 대하여 갖는 태도에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하나는 죽음이 정체성의 종말이라는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죽음이 새로운 삶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관점이다. 최근에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공포 뿐 아니라 죽음에 대한 수용까지를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구성체라는 점이 지적되어 죽음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어 왔는데(e.g., Collett & Lester, 1969; Hoelster, 1979; Neimeyer, Bagley, & Moore, 1986; Schultz, 1977; Wong, Recker, & Gesser, 1994), 이들은 공통적으로 죽음 공포(death fear)와 죽음 수용(death acceptance)을 포함하는 죽음에 대한 태도의 다차원적 개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죽음 공포의 감정적 측면과 죽음 수용의 인지적 측면 그리고 죽음 대처 유능감이라는 신념적 측면을 연구에 포함하였다. 또한 죽음 태도와 관련되는 행동적 지표들로서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장기 기증 경향성과 자살 충동성 등을 측정하였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노년기에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수용 태도를 구성하는 개별 하위 척도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인구학적 변인들, 성격 변인들 및 적응 지표 등과 죽음 태도간의 관계성을 탐색하고, 노년기 자아통합감이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 대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노인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처하는 자기효능감인 죽음 대처 유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죽음 준비 교육(death education)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노년 집단의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죽음 대처 유능감과 관련되는 변인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별, 연령, 건강, 경제, 종교의

유무, 및 교육수준 등의 인구학적 변인들과 외향성과 신경증을 포함하는 성격 변인들, 그리고 낙관성, 인생만족감, 우울, 및 자살충동성 등을 포함하는 노년기 적응 지표, 장기기증 경향성 및 자아통합감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이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죽음 대처 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성별이나 종교 유무, 배우자 사별 여부 및 거주 환경 등에서의 차이에 따라 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 대처 유능감에서 집단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가 노년기의 죽음 대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죽음에 대한 태도

본 논문에서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공포라는 정서적 측면, 죽음을 삶의 일부라고 간주하는 죽음 수용의 인지적 측면 및 죽음에 직면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하는 개인적 효능감의 신념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죽음에 대하여 개인이 느끼는 감정(affect)과 인지(cognition) 및 죽음에 대한 개인적 신념(belief)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음 태도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적 배경에서는 죽음 태도를 주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여 왔다. 그러나 Ray와 Najman(1974)은 죽음 수용이 죽음 공포와 단일 차원 상에서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Feifel(1990)도 개인에게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수용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보편적인 정서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다(Bakan, 1971; Becker, 1973; Marshall, 1980). 그러나 여러 연구자들은 죽음 공포가 단일한 구성 개념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Collett & Lester, 1969; Littlefield & Fleming, 1984). Fry(2000)는 죽음 공포가 자아 상실(the loss of self), 미지의 사후세계(the unknown beyond death), 죽음과 관련된 고통과 괴로움(pain and suffering), 남은 가족들의 복지(the welfare of surviving family members)에 대한 근심 등을 포함하는 여러 원인들로부터

터 기인하며, Hoelter(1979a)의 '다차원적 죽음 공포 척도(Multidimensional Fear of Death Scale)' 중 '죽음 과정에 대한 공포'와 '사후세계에 대한 공포' 하위 척도가 죽음 공포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Wong, Recker, 및 Gesser(1994)는 죽음 공포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개관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 뿐 아니라 죽음 수용의 측면까지 포괄하는 죽음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 척도를 개발하였다.

Elisabeth Kübler-Ross(1969)에 의하면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단계는 죽음 수용(death acceptance)이며 부정, 분노, 협상, 우울 단계를 거쳐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단계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Kübler-Ross가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죽음 수용을 설명한 것에 비해 Neimeyer(1994)는 죽음 수용을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는 건강한 개인에게 있어서 죽음에 대한 심리적인 준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한편, Wong 등(1994)은 죽음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연구들을 개관하여 죽음 수용의 3 요인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이들에 의하면 죽음 수용은 중립적 수용(neutral acceptance), 접근적 수용(approach acceptance) 및 도피적 수용(escape acceptance)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죽음에 대한 중립적 수용은 죽음이 삶에서 불가피한 요소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죽음을 비교적 담담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죽음에 대하여 이러한 관점을 가지는 사람들은 죽음을 삶의 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큰 두려움 없이 수용한다. 인본주의/실존주의 심리학에서는 개인의 유한성(mortality)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자아 실현(self actualization)이 가능해진다는 관점을 제시하며, 성공적으로 자아를 실현한 사람은 자신의 죽음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Bugen et al, 1965; Feifel, 1990; Maslow, 1968).

접근적 수용은 행복한 사후 세계와 관련된 신념과 관련된 것이다. Florian(1993)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후 세계가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믿거나 영생에 대한 종교적 신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이나 가족의 죽음에 대해 덜 불안해하고 죽음을 보다 긍정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피적 수용은 삶이 고통과 비탄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러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Vernon(1972)은 어떤 이들에게는 오직 죽음만이 유일한 탈출구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죽음 공포와 수용의 하위 요소들을 포함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노년기 죽음 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 죽음 태도와 관련되는 인구학적 변인들

죽음 태도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연령, 성별, 주거 환경, 경제적 수준 및 교육 수준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구분한 노인 집단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어 왔다. Fortner와 Neimeyer(1999)는 죽음 불안과 관련된 49개 논문들에 대한 양적 개관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죽음 공포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은 연령(age), 성별(gender), 자아 통합감(ego integrity), 시설 거주 여부(institutionalization), 심리적 · 신체적 문제들(psychological and physical problems) 및 종교성(religiosity)이었다. 또한 Fry(2003)는 기존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뿐 아니라 성격 변인들과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을 포함하는 개인차 변인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인들보다 성격이나 개인차 변인들이 죽음 공포를 더 잘 설명하여 주는 예언 변인이라고 주장하였다.

Pollark(1980)은 죽음 공포 연구들에 대한 개관을 통해 여성의 죽음 공포 수준이 남성에 비해 높다고 주장했는데, 다수의 연구들이 그의 주장을 지지하였다(Fleming, Bunting, & Clare, 1980; Lonetto, Mercer, McMordie, 1978; Neimeyer, Bagley, & Moore, 1986; Neimeyer 등, 1977; Wass & Myers, 1982). 이러한 차이는 여러 문화에서 보편적인 경향성을 보였다(Lonetto 등, 1980). Neimeyer(1986)는 Collett-Lester의 죽음 불안 척도를 사용한 연구를 통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죽음 공포 수준이 높다고 주장하였으며 Fry(2003)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죽음 공포 수준이 낮고 적응을 잘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조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높은 죽음 불안을 보인다고 주장한 연구들도 존재한다(Berman &

Hays, 1975; Cole, 1978; Robinson & Wood, 1984). Klenow와 Bolin(1989)은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죽음 불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주장하였다. Jeffers, Nichols와 Eisdorfer(1961)는 종교적 헌신이 강한 사람들이 사후 세계를 더 믿는 경향이 있고 죽음 공포 수준이 낮다는 것을 밝힌 바 있으며, Berman 등(1975)은 종교적 관여 정도와 사후 세계에 대한 신념 간의 강한 상관을 발견하였다. Peterson과 Greil(1990)의 연구에서도 사후 세계에 대한 신념과 종교성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반면에 Aday(1984)는 사후세계에 대한 신념이 종교의 주된 기능인 것은 사실이지만 죽음 공포와는 직접적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종교적 신념과 죽음 공포간의 부적인 관계성을 보고했지만(Feifel & Nagy, 1981; Hooper & Spilka, 1970; Martin & Wrightsman, 1965; Stewart, 1975; Templer, 1972), 둘 간의 관계성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은 연구들도 있고(Feifel, 1974; Kalish, 1963; Templer & Dodson, 1970), 종교적인 사람들이 죽음 공포 수준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타난 연구들도 존재한다(Templer & Ruff, 1975; Young & Daniels, 198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나 경제 수준과 같은 인구학적 변인들에서의 차이에 따른 집단 비교 뿐 아니라, 종교를 가진 노인들과 종교를 갖지 않은 노인들 간에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인지 탐색하여 보고자 한다.

#### 적응 관련 지표들과 죽음에 대한 태도

Flint, Grayton 및 Ozmon(1983)은 죽음 수용과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Wong 등(1994)은 죽음 공포가 높을수록 안녕감이 저하된다는 관계성을 확인하였다. 죽음에 대한 중립적 수용은 높은 심리적, 신체적 안녕감과 관련되었다. 사회-인지 모델을 취하는 여러 연구들(예를 들어, Fry, 2001a, Lawton, 2001; Smith 등 2000)은 자신감이 낮은 노인들이 삶의 만족도가 더 낮고 자아 존중감이 저하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으며, Tomer와 Eliason(2000)은 노인들이 죽음을 더 많이 의식하고 있으므로 노년기의 자아 존중감(self-esteem)이 노인들의

사후 세계에 대한 공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청년이나 장년들에 비해 더 높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Steinitz(1980)는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과 낙관성 간의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고하였다.

Hamachek(1990)는 자아 통합감과 절망감을 반영하는 기본적인 행동 특징과 태도를 구분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자아 통합감을 이룬 사람들의 행동적 표현들 중 대표적인 것은 '죽음을 삶의 일부로 수용한다'였고, 절망감에 빠진 사람들의 행동적 표현 중 대표적인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Erikson(1963)이 규정한 인간 생애의 발달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통합 대 절망의 단계에서 경험되는 내용과 합치하는 것이다(Wong 등, 1994). 또한 Drolet(1990)는 삶의 목표가 뚜렷할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낮다는 것을 밝혔고 Durlak(1972)은 삶의 의미와 목표를 명확하게 보고한 피험자들이 죽음에 대하여 더 적은 공포를 보이고 죽음을 더 잘 수용하며 더 긍정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이러한 관점은 인생 회고(life review)와 죽음 태도간의 관계성을 연구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지되었다(Lewis & Butler, 1974).

반면에, 노년기의 절망감(despair)은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는 것이다(Erikson, 1980). 윤진(1985)은 절망감에 빠진 노인들이 자신의 삶에 혐오를 느끼며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지 못한 채 불안한 노년을 맞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아통합감이 높은 노인들이 비교적 긍정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자아통합감이 노년기 죽음에 대한 공포와 수용 및 죽음 대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죽음 대처 유능감

죽음 대처 유능감은 Kübler-Ross(1969)가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서, 죽음을 앞둔 환자나 그 가족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질을 정의하는 개념으로부터 발전된 것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돌보며 죽음에 대해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hospice) 간 호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들

이 축적되면서 죽음에 대처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Godkin, Krant, & Doster, 1983-1984).

Bugen(1981)의 죽음 대처 척도(Coping with Death Scale)는 죽음 준비 교육(death education)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된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죽음 교육의 효과를 죽음 불안의 감소라는 차원에서 평가하고자 하였지만 연구 결과들은 일관적이지 않았다(White, Gilner, Handal, & Napoli, 1983-1984). 따라서 최근에는 죽음 공포의 감소를 측정하는 대신 죽음 대처 유능감(death competency)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Robbins, 1994).

Robbins(1990)는 Bandura가 제안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 중에서 영역특정적(domain-specific) 효능감의 하나인 죽음 자기효능감(death self-efficacy)을 죽음 대처 유능감(death competency)이라고 정의하였다. 이것은 자신 또는 타인의 죽음에 대처할 수 있다는 지각된 자기효능감으로 설명되는 개념이다. 죽음 대처 유능감과 관련된 연구들(Fry, 2001a, 2001b; Fry & Debats, 2002; Seeman, Unger, McAvay, & Mendes de Leon, 1999; Smith 등, 2000)에 의하면 이러한 효능감은 노년기의 건강이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되며, 내면적 강인성(hardiness)과도 연관된다. Neimeyer와 Moore(1994)는 자기 효능감이 사후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Robbins(1994)는 죽음 대처 유능감 척도와 장기 기증 효능감 척도(organ donation self-efficacy scale)를 사용하여 죽음 대처 유능감이 장기 기증 결정이라는 행동적 지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는데,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기로 서약한 사람들은 죽음 대처 유능감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죽음 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죽음 공포와 죽음 수용이 각각 죽음 대처 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비교하였고 부가적으로 성별에 따라서 노년기 죽음 대처 유능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 방 법

### 연구 대상

60세 이상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노인 인지 장애 판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4명의 자료를 제외한 96명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 중 남자 노인은 33명, 여자 노인은 63명이었다. 참가자의 연령 범위는 61세부터 86세까지이고, 평균 연령은 71.7세, 표준편차는 5.47이었다.

### 측정 도구

#### 인구학적 변인들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경제 수준 및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등의 인구학적 변인을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성별은 남성을 1로, 여성을 2로 지정하였고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주관적 건강과 경제 수준은 '매우 좋지 않다'부터 '매우 좋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 성격 변인들의 측정

NEO-PI(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Manual)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oldberg와 Saucier(1996)의 IPIP(Interpersonal Personality Item Pool 10)를 유태용, 김명언과 이도형(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외향성, 신경증, 우호성, 개방성, 성실성 등의 다섯 가지 성격 특성들을 나타내는 50개의 진술문들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이 자기 자신과 부합되는 정도를 5점 척도에 답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판 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하위 영역별로 N=.91, E=.90, O=.79, A=.67, C=.95였고, 본 연구에서 얻어진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외향성 .650, 개방성 .531, 우호성 .701, 신경증적 성향 .613, 성실성이 .795이다.

#### 적용지표들의 측정

낙관성은 낙관주의-비관주의 척도 개정판(Life Orientation Test-Revised: LOT-R) 10문항을 사용하여 5점 척도상에서 답하게 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내적

합치도는 .568이었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의 측정  
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GSES(Global Self-  
Esteem Scale)을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자기 개념의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  
는 전반적인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이 자신에게 부합하는 정도를 5점  
척도상에 표시하게 하였다. 한국판 척도의 내적 합치도  
는 .89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703이었다.

심리적 적응(Psychological Adaptation)의 측정은 성  
인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적응 정도를 측정하도록 고안  
된 척도인 PGCMS(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Lawton, 1975; Liang & Bollen, 1983) 15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평정감(non-agitation),  
노화에 대한 만족(aging satisfaction) 및 삶에 대한 만  
족(life satisfaction)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며, 하위 척도  
별 내적 합치도 계수는 평정감이 .79, 노화에 대한 만족  
이 .69으로 보고되었다. 삶에 대한 만족은 1문항으로 구  
성되므로 내적 합치도 계수가 보고되지 않았다(유 경,  
2005).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37이  
었다. 한편, 인생 만족(Life Satisfaction)의 측정은 현재  
삶 만족도, 과거 삶 만족도, 전반적 인생 만족도, 신체적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등 다섯 문항에 대해 5점 척도  
상에 평정하게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얻어진 내적 합치  
도는 .832이었다.

노년기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n Version; GDSSF-K, 기백서, 1996) 15문  
항을 사용하였다. Yesavage(1986)는 청년 집단의 우울  
과 달리 노년기의 우울은 신체 증상과 무관하며 심리  
증상을 평가하는데 있어 청년들보다 더 회피적이고 저  
항적이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적합한 우울증 진단검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  
여 개발된 것이 노인 우울 척도이다.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의 반분신뢰도 계수는 .88, 검사-재검사 신  
뢰도는 .93으로 보고되었으며 Beck Depression  
Inventory(한국어판, 한홍무, 1986)와는 .50의 상관, 자기  
보고 우울 척도(Self-rating Depression Scale 한국어판,  
송옥현, 1977)과는 .50의 상관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  
서 얻어진 내적 합치도는 .867이었다.

### 자아 통합감의 측정

노년기 자아 발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제  
작하기 위하여 실시된 홍주연(2000)의 연구에서 개발된  
16문항의 자아통합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과거 삶에 대해 비교적 만족해하며 현재 노년기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인생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  
며 삶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을 포함하는 자  
아통합감을 측정하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에 대한 수  
용’ 하위 척도 11문항의 내적합치도는 .83이었고 ‘삶에  
대한 태도’ 하위 척도 5문항의 내적합치도는 .61이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내적 합치도는 .745이다.

### 죽음에 대한 태도의 측정

김지현(2008)이 개발한 21문항의 죽음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1명의 노인 집단을 대상으  
로 Wong 등(1994)의 죽음 태도 질문지-개정판(Death  
Attitude Profile-Revised)을 변안하여 실시한 연구에서  
문항-총점 상관이 높은 문항들 중 죽음 공포와 죽음 수  
용을 측정하는 7개의 하위 척도 당 세 문항씩을 선정하  
여 총 21문항의 축약형 죽음 태도 질문지를 구성한 것  
으로서,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7점 Likert 척도 상  
에서 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  는 .718이었으며 하위 척도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 $\alpha$  = .842), 죽음 과정  
공포( $\alpha$  = .826), 죽음 회피( $\alpha$  = .817), 사후 세계에 대한 공  
포( $\alpha$  = .860), 죽음에 대한 독립적 수용( $\alpha$  = .766), 접근적  
수용( $\alpha$  = .691), 도피적 수용( $\alpha$  = .955) 이었다.

### 죽음 대처유능감(Death Competency)의 측정

죽음에 대한 대처를 측정하는 Bugen(1980, 1981)의  
죽음 대처 유능감 척도(Coping with Death Scale)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서 “나는 죽음에 대해 긍정적  
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음을 대할 준비가 되  
었다고 느낀다.” 등의 문항들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  
도 상에 답하게 하는 것이다. 문항들은 본 연구자가 변  
안하여 심리학을 전공한 5명들의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  
쳐 확정된 것을 사용하였다. 보고된 신뢰도는 .89이고 2  
주간 간격을 둔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1이었다. 본 연  
구에서 얻어진 내적 합치도는 .716이었다.

### 장기 기증 효능감의 측정

Robbins(1993)가 사용한 장기 기증 효능감 척도(Organ Donation Self-Efficacy Scale) 13문항을 사용하여, 연구 참가자들에게 각 문항들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 1점(전혀 확신할 수 없다)에서 5점(전적으로 확신한다)까지의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 내용은 "장기 기증 관련기관(장기 기증 협회 등)과 연락할 시간을 낼 수 있다", "가까운 가족과 장기 기증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다", "내가 장기기증 서약 카드에 서명한 것을 가족에게 보여줄 수 있다", "나 자신의 장기 기증 서약 카드에 서명할 수 있다" 등이다. 보고된 신뢰도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얻어진 내적합치도는 .932이었다.

### 노인 인지 장애 판별 검사

노인 인지장애 판별 검사인 MMSE-K(Mini Mental Status Examination-Korea)는 한국 노인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권용철과 박중환, 1989). 이 검사는 인지기능 장애의 유무와 그 정도를 간편하게 판별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으며 검사자간 신뢰도는 .90으로 보고되었다.

### 절 차

S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4학년 전공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인 면접 조사에 요구되는 기술을 훈련시킨 후 개별 면접을 통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면접자들에게 추석 연휴를 이용하여 고향을 방문하여 친지 중 60세 이상 노인에게 일대일 면접 조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참가자에게 노인 인지 장애 판별 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질문지 완성 시간은 약 40분에서 한 시간 가량 소요되었으며 실험 참가자들과 면접자에게 각각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 결 과

먼저,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인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 수용적 태도의 총점 간에는 약한 부적 관계성이 존재하였다( $r = -.203, p < .050$ ).

또한 노년기 죽음 대처 유능감은 죽음 공포가 낮을수록, 그리고 죽음 수용이 높을수록 높았다. 인구 통계적 변인들과 노년기 죽음 태도 간의 관계성 분석에서 얻어진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교육 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죽음에 대한 수용 태도가 높다는 것이다( $r = .216, p < .05$ ).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의 유무가 노인들의 죽음 수용적 태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는데( $r = .284, p < .000$ ) 종교를 가진 노인일수록 접근적인 죽음 수용 태도가 높았다( $r = .291, p < .01$ ).

성격 변인 중에서는 성실성이 노년기 죽음 태도와 관련성을 보였는데, 성실성이 높은 노인들은 죽음 수용적 태도가 높았고( $r = .243, p < .05$ ) 특히 중립적 죽음 수용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 = .347, p < .001$ ). 또한 성실성이 높은 노인들은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가 낮았다( $r = -.217, p < .05$ ).

외향성은 죽음에 대한 중립적 수용과 관련성을 보여 주었다( $r = .276, p < .01$ ). 또한 우호성이 높을수록 죽음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죽음에 대한 중립적 수용 태도가 높았다( $r = .324, p < .001$ ).

자아 존중감이 높은 노인들은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가 낮고( $r = -.215, p < .05$ ) 죽음 수용 태도가 높았으며( $r = .284, p < .01$ ) 특히 죽음에 대한 중립적 수용이 높았다( $r = .397, p < .000$ ). 또한 노년기 자아 통합감이 높을수록 죽음 공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r = -.253, p < .05$ ), 자아 통합을 잘 이룬 노인일수록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 $r = -.274, p < .01$ )와 죽음 과정에 대한 공포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 = -.248, p < .05$ ).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노년기 우울이나 자살 충동과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죽음 공포가 낮은 노인일수록 장기 기증을 하려는 경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r = -.210, p < .05$ ), 특히 사후 세계

표 1. 노년기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주요 연구 변인들 간의 관계

	죽음자체 공포	죽음과정 공포	사후세계 공포	죽음 회피	도피적 수용	중립적 수용	접근적 수용
Demographics							
연령	-.035	.036	-.178	.108	-.034	-.035	.041
성별※	-.211*	.089	-.157	-.142	.104	.099	.017
주관적 건강	-.103	-.109	-.094	-.080	-.039	-.112	.064
경제 수준	.131	.104	.188	.075	-.106	-.038	.048
종교 유무	.150	.052	-.015	.128	-.144	-.044	.291**
교육 수준	.088	.052	.036	-.043	.091	.128	.180
Personality							
외향성	-.041	-.022	-.005	.001	.175	.276**	-.031
개방성	-.166	-.041	-.020	-.064	.023	.184	.092
우호성	-.319**	-.174	-.121	-.070	.045	.324***	-.047
신경증	.084	.180	.045	-.033	.093	.071	-.110
성실성	-.217*	-.079	-.102	-.069	.254*	.347***	.013
Adaptation							
낙관성	-.167	-.072	-.024	-.008	.038	.141	.131
자존감	-.215*	-.007	-.052	-.026	.143	.397***	.125
심리적 적응	-.169	-.178	-.170	-.011	-.117	.074	.097
인생 만족감	-.140	-.100	-.090	.036	-.021	.128	.009
우울	.052	.141	.134	.036	.170	.013	-.141
자살충동	-.118	.044	.046	.041	.130	.053	.024
자아통합감	-.274**	-.248*	-.173	-.104	.034	.089	.141
장기기증 경향성	-.104	-.082	-.233*	-.261*	.056	.023	.030
죽음대처 유능감	-.270**	.057	-.262*	-.232*	.259*	.442***	.022

\* $p < .05$ , \*\* $p < .01$ , \*\*\* $p < .001$  ※남자는 0, 여자는 1로 입력

에 대한 공포가 낮고( $r = -.233, p < .05$ ) 죽음 회피 태도가 낮은 노인들이 자신의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r = -.261, p < .05$ ).

죽음 태도와 죽음 대처 유능감 간의 상관 분석 결과를 보면, 죽음 공포가 낮은 노인일수록 죽음에 대한 대처를 잘하고( $r = -.228, p < .05$ ),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가 낮고( $r = -.270, p < .01$ ), 사후 세계에 대한 공포가 낮으며( $r = -.262, p < .05$ ), 죽음을 회피하는 경향이 적을수록( $r = -.232, p < .05$ ) 죽음 대처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죽음에 대한 수용 태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죽음 대처에 대한 자신감이 높았다( $r = .282, p < .01$ ). 죽

음에 대한 중립적 수용( $r = .442, p < .000$ )과 도피적 수용 태도가 높은 노인들이( $r = .259, p < .05$ ) 죽음에 대해 대처를 잘 할 수 있다고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는 변인들의 상관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에 대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죽음 태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 하위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자 노인들이 여자 노인들에 비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높았다( $t = 2.09, p = .039$ ). 노년 집단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 다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2. 주요 연구 변인들에서의 평균과 표준편차

	남 성(N=33)		여 성(N=63)		전 체(N=93)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b>Demographics</b>						
연령	70.52	(5.56)	72.25	(5.38)	71.66	(5.47)
건강	3.27	(.67)	2.79	(.97)	2.96	(.90)
경제수준	3.06	(.70)	3.09	(.70)	3.08	(.70)
종교성	3.06	(1.38)	3.48	(1.43)	3.34	(1.42)
<b>Death Attitude</b>						
죽음자체 공포	4.03	(1.75)	3.29	(1.57)	3.54	(1.66)
죽음 회피	3.53	(1.51)	3.08	(1.47)	3.23	(1.49)
죽음과정 공포	4.09	(1.73)	4.40	(1.64)	4.29	(1.67)
사후세계 공포	3.27	(1.89)	2.72	(1.51)	2.91	(1.66)
중립적 수용	5.53	(1.29)	5.75	(.92)	5.67	(1.06)
도피적 수용	4.11	(1.83)	4.47	(1.56)	4.34	(1.66)
접근적 수용	4.26	(3.47)	4.34	(1.37)	4.31	(2.30)
<b>Adaptation Indices</b>						
심리적 적응	3.22	(.54)	3.07	(.72)	3.12	(.66)
인생 만족감	3.28	(.56)	3.09	(.77)	3.15	(.71)
우울	3.18	(3.12)	5.13	(4.33)	4.45	(4.05)
자살 충동	.121	(.33)	.175	(.38)	.156	(.36)
자아통합감	3.23	(.53)	3.29	(.48)	3.27	(.49)
낙관성	3.30	(.46)	3.21	(.66)	3.23	(.60)
자존감	3.50	(.65)	3.55	(.77)	3.53	(.73)
<b>Personality</b>						
외향성	3.15	(.76)	3.09	(.85)	3.11	(.81)
개방성	3.05	(.67)	2.95	(.82)	2.98	(.77)
우호성	3.35	(.75)	3.46	(.92)	3.42	(.86)
신경증	2.68	(.77)	2.79	(.85)	2.75	(.82)
성실성	3.57	(.98)	3.67	(1.00)	3.63	(.99)
죽음 대처 유능감	3.34	(.64)	3.41	(.70)	3.38	(.68)
장기 기증 효능감	2.58	(1.21)	2.40	(1.16)	2.45	(1.18)

또한 건강에서 유의미한 성별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t = 2.53, p = .013$ ), 남자 노인들은 여자 노인들보다 자신이 비교적 건강하다고 보고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종교가 있는 노인 집단( $N=63$ )과 종교를 갖지 않은 노인 집단( $N=33$ )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종교를 가

진 노인들은 종교가 없는 노인들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은 죽음 수용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t = 2.86, p = .005$ ), 종교를 가진 노인들이 특히 죽음에 대한 접근적 수용 태도가 높았다( $t = 2.94, p = .004$ ). 종교를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서 개방성이 높았고( $t = 2.02, p = .046$ ), 경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 = 2.08, p = .040$ ).

표 3. 노년기 죽음 공포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Model 1		Model 2		Model 3	
	$\beta$	$t$	$\beta$	$t$	$\beta$	$t$
Demographics						
성별	-.181	-1.682	-.158	-1.470	-.142	-1.326
건강	-.219	-2.007*	-.214	-1.941	-.180	-1.614
경제	.212	1.986*	.186	1.754	.226	2.073*
종교	.110	1.041	.118	1.085	.123	1.131
Personality						
개방성			.077	.617	.096	.766
우호성			-.236	-1.799	-.233	-1.781
신경증			.086	.815	.033	.296
성실성			-.071	-.631	-.010	-.083
Ego Integrity						
					-.176	-1.443
$F$	2.154		1.974		2.009*	
$R^2$	.091		.161		.183	
$R^2$ change			.070*		.022	

\* $p < .05$ , \*\* $p < .01$ , \*\*\* $p < .001$

다음으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나타내는 심리적 특성과 적응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죽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혼자 사는 노인( $N=18$ )과 타인과 함께 생활하는 노인들( $N=78$ )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우자 혹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노인들에 비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은 인생 만족감이 낮고( $t = -3.472, p = .001$ ) 심리적 적응 수준도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 = -3.472, p = .001$ ).

독거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비판적이고( $t = -2.62, p = .010$ ) 자아 존중감이 낮았다( $t = -2.11, p = .037$ ). 또한 혼자 사는 노인들은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t = -2.508, p = .014$ ).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 $N=58$ )과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 $N=34$ ) 간의 집단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의 인생만족감이 더 높고( $t = 2.76, p = .007$ ), 우울 수준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 = -2.32, p = .023$ ).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고하였고( $t = 2.48, p = .015$ ), 건강이 좋지 않다고 보고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t = 2.15, p = .034$ ).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노년기 죽음에 대한 공포와 수용, 및 죽음 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죽음 공포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설명 변인으로 하여 인구학적 변인, 성격 변인 및 자아통합감을 입력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노년기 죽음 공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모델은 인구학적 변인, 성격 변인 및 자아통합감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약 18.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변인들 중에서 노년기 죽음 공포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는 변인은 경제적 수준이었는데( $\beta = .226, t = 2.073, p < .05$ ),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보고한 노인들의 죽음 공포가 높았다.

또한 노년기 죽음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는 하위 요인들 간에 높은 관계성이 나타났으므로 죽음 공포의 총점을 가지고 변인들의 영향을 설명하였지만, 노년기 죽음 수용의 경우에는 중립적 수용과 도피적 수용, 및 접근적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회귀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하여 주리라고 판단되었다.

회귀 분석 결과, 노년기 죽음 수용적 태도에서 도피적 수용과 접근적 수용에 대한 모델의 설명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비해서, 노년기 죽음에 대한 중립적 수용에 대한 인구, 성격 및 자아 통합감을 포함하는 모델의

표 4. 노년기 죽음에 대한 중립적 수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Model 1		Model 2		Model 3	
	<i>B</i>	<i>t</i>	<i>B</i>	<i>t</i>	<i>B</i>	<i>t</i>
Demographics						
성별	.021	.191	-.025	-.242	-.017	-.162
건강	-.097	-.864	-.100	-.957	-.081	-.753
경제	-.015	-.134	.003	.033	.027	.259
종교	-.058	-.527	-.089	-.849	-.086	-.821
Personality						
개방성			.093	.776	.103	.861
우호성			.219	1.742	.222	1.761
신경증			.102	1.022	.073	.687
성실성			.268	2.481*	.307	2.631**
Ego Integrity						
<i>F</i>	.341		3.070**		2.810**	
<i>R</i> <sup>2</sup>	.015		.228		.236	
<i>R</i> <sup>2</sup> change			.213**		.008	

\**p* < .05, \*\**p* < .01, \*\*\**p* < .001

설명력은 23.6%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1).

노년기 인구학적 변인들은 중립적 수용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비해서, 성실성을 포함한 성격 변인이 포함된 모델은 21.3%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22.8%의 설명력을 갖는 유의미한 모델이었으며(*p* = .004), 노년기 자아 통합감을 부가적으로 포함하면 설명력이 더욱 증가하여 약 23.6%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 = .006). 중립적 죽음 수용 태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시기인 노년기의 죽음 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학적 변인들은 노인들의 죽음 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격변인들은 노년기 죽음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성실성의 영향이 유의미하였는데, 이는 노년기 중립적 죽음 수용 태도에 성실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을 상기해 볼 때 흥미로운 결과이다. 성격을 포함하는 모델은 죽음 대처 유능감의 약 26.4%의 변산성에 대한

표 5. 노년기 죽음 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Model 1		Model 2		Model 3	
	<i>B</i>	<i>t</i>	<i>B</i>	<i>t</i>	<i>B</i>	<i>t</i>
Demographics						
성별	.035	.315	-.009	-.093	-.032	-.321
건강	.053	.469	-.001	-.008	-.048	-.461
경제	-.113	-1.024	-1.00	-1.020	-.150	-1.514
종교	-.092	-.838	-.079	-.767	-.084	-.837
Personality						
개방성			.225	1.908	.205	1.763
우호성			.131	1.057	.124	1.014
신경증			.012	.118	.081	.788
성실성			.315	2.976**	.234	2.106*
Ego Integrity						
<i>F</i>	.416		3.679***		3.863***	
<i>R</i> <sup>2</sup>	.019		.264		.300	
<i>R</i> <sup>2</sup> change			.145**		.036*	

\**p* < .05, \*\**p* < .01, \*\*\**p* < .001

표 6. 노년기 죽음 태도가 죽음 대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성차

	전 체(N=96)		남성 노인(N=33)		여성 노인(N=63)	
	<i>B</i>	<i>t</i>	<i>B</i>	<i>t</i>	<i>B</i>	<i>t</i>
죽음 자체 공포	-.224	-1.449	-.402	-1.552	-.131	-.686
죽음 과정 공포	.235	1.987*	.282	1.038	.316	2.413*
죽음 회피	-.140	-1.095	-.258	-1.144	-.167	-1.118
사후세계 공포	-.093	-.722	.234	1.058	-.296	-1.943
중립적 수용	.299	2.929**	.097	.531	.333	2.842**
접근적 수용	-.015	-.154	-.059	-.354	.095	.788
도피적 수용	.092	.860	.520	2.727*	-.145	-1.121
<i>F</i>	4.868***		2.368		5.544***	
<i>Sig.</i>	.000		.054		.000	
<i>R</i> <sup>2</sup>	.229		.236		.350	

\* $p < .05$ , \*\* $p < .01$ , \*\*\* $p < .001$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자아 통합감을 포함하면 설명력이 3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년기 죽음 대처 유능감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죽음 공포와 죽음 수용 태도가 노년기 죽음 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죽음 대처 유능감을 설명 변인으로 하고 죽음에 대한 태도를 예측 변인으로 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노년기 죽음 대처 유능감의 약 22.9%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예언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죽음 과정에 대한 공포( $p = .05$ )와 죽음에 대한 중립적 수용( $p = .004$ )은 죽음 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주었다. 회귀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 논 의

본 연구는 노년 집단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확인하고 노년기 죽음 대처 유능감에 죽음 태도가 주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노년기 죽음 태도는 성별, 종교, 거주 환경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성실성, 우호성, 외향성과 같은 성격 변인 및 낙관성, 자아 존중감, 심리적 적응 등의 적응 지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아 통합감과 적응 지표들 간의 관계도 확인되어 기존

연구 결과들을 지지하는 증거들이 얻어졌다.

노년기 죽음 태도를 성별이나 종교성 및 거주 환경에 따른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성 노인들이 여성 노인들에 비해서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가 높다는 결과가 얻어졌다. 한편, 종교의 유무와 배우자 사별 여부, 독거 여부 등과 같은 변인들이 노년기 적응과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노년기 적응과 안녕감에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보다 광범위한 표집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노년기 인구학적 변인, 성격 변인 및 자아 통합감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이러한 변인들이 노년기 죽음 공포의 약 18.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변인들 중에서 노년기 죽음 공포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는 변인은 경제적 수준이었다( $\beta = .226, t = 2.073, p < .05$ ). 이는 재산이 많은 노인들일수록 죽음에 대하여 더 많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으로서 흥미로운 결과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경제력과 죽음 공포와의 관계성을 확인한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노년기 죽음 수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노년기 죽음 수용적 태도에서 도피적 수용과 접근적 수용에 대한 모델의 설명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비해서, 노년기 죽음에 대한 중립적 수용에 대한 인구

학적 변인, 성격 변인 및 자아 통합감을 포함하는 모델의 설명력은 23.6%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 < .01$ ). 노년기 인구학적 변인들은 중립적 수용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비해서, 성실성을 포함한 성격 변인이 포함된 모델은 21.3%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22.8%의 설명력을 갖는 유의미한 모델이었으며( $p = .004$ ), 노년기 자아 통합감을 부가적으로 포함하면 설명력이 더욱 증가하여 약 23.6%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 = .006$ ).

본 연구에서는 인생을 마감하는 시기인 노년기에 죽음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하는 죽음 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분석 결과 인구학적 변인들은 노인들의 죽음 대처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격 변인들이 노년기 죽음 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3.679$ ,  $R^2 = .264$ ,  $p < .001$ ). 성격 변인 중에서 성실성이 노년기 죽음 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흥미로운 시사점을 주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성격 변인과 더불어 노년기 자아 통합감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킨 모델은 노년기 죽음 대처 유능감에 대한 설명력이 30%까지 증가하였다( $F = 3.863$ ,  $R^2 = .300$ ,  $p < .000$ ).

한편, 노년기 죽음 대처 유능감에 미치는 죽음 태도의 영향이 확인되었는데 죽음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죽음에 대한 중립적 태도가 높거나 죽음 과정에 대한 공포가 낮은 노인들일수록 죽음에 대처하는 자신감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노년기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죽음 대처 유능감에 대해 22.9%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 ).

부가적인 분석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죽음 태도가 죽음 대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피적 수용 태도가 죽음 대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p = .012$ )을 제외하고는 남자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죽음 대처 유능감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여자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노년기 죽음 대처 유능감에 대하여 약 3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죽음 과정에 대한 공포( $p = .019$ )와 중립적 수용 태도( $p = .006$ )는 노인 여성들의 죽음 대처 유능감을 예측해 주는 변인들이었다.

본 연구의 노인 참가자 중 여성의 비율이 66%로 높

고 여성 노인의 평균 연령이 72.2세, 남성 노인들은 70.5세로 여성들의 연령이 더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성비의 균형을 이룬 80세 이상의 광범위한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죽음 대처 효능감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죽음 수용, 죽음 공포 및 죽음 대처 유능감에서의 성차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경제 수준이 높은 노인들일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가 높다는 결과와 종교 유무가 죽음에 대한 접근적 수용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었음에도 회귀 분석 결과 죽음에 대한 태도나 죽음 대처 유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Aday(1984)는 사후세계에 대한 신념이 종교의 주된 기능인 것은 사실이지만 죽음 공포와는 직접적 상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그러한 결과가 시사되었다. 그러나 노년기의 종교 생활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밝혀져야 할 것이다.

노년기 성실성과 자아 통합감은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자세인 죽음에 대한 중립적 수용 태도와 죽음에 대하여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죽음 대처 유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존주의 심리학자들은 성공적으로 자아를 실현한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Feifel, 1990; Maslow, 1968; May, Angel, & Ellenberger, 1958), 한성열(1990)의 연구에서 자아 통합감을 달성한 사람들이 인생 후반기를 동요 없이 지낼 수 있으며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던 것을 상기에 볼 때, 본 연구에서 자아 통합감이 노년기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 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기존 연구 결과와 합치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Fortner와 Neimeyer(1999)는 죽음 불안과 관련된 49개 논문들에 대한 양적 개관을 실시한 결과 죽음 공포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이 연령(age), 성별(gender), 자아 통합감(ego integrity), 시설 수용 여부(institutionalization), 심리적, 신체적 문제들(psychological and physical problems) 및 종교성(religiosity)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연령, 성별, 종교성, 적응 및 자아 통합감이 죽음 공포

뿐만 아니라 죽음 수용과 죽음 대처 유능감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하였지만 시설 수용 여부의 영향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독거 여부에 따른 집단 차이 분석을 실시하여 거주 환경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는 했으나 죽음 태도와 관련된 유의미한 차이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양로원과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추후 연구가 실시된다면 죽음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죽음 태도 축약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는데, 높은 내적 합치도를 가진 신뢰로운 도구로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척도는 서구 사회에서 실시된 기존 연구들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인된 문항들에 기초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 문항들을 수집하고 그러한 문항들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개발된다면 한국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더 정확하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노년기 죽음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요인들과 죽음에 대처하는 유능감 간의 관계성에 대한 모델을 검증하여 변인들 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노년 표본이 구조 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기에는 작았으므로 노년기 죽음 대처 유능감과 죽음에 대한 태도간의 관계성의 방향에 대한 검증은 보다 광범위한 노인 표집을 사용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다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Robbins(1990,1994)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죽음 교육의 효과를 죽음 불안의 완화로 설명하는 대신에 죽음 대처 유능감의 개념으로 설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죽음 대처 유능감이 죽음과 관련된 행동적 측정치인 장기 기증(organ donation)이나 호스피스(hospice) 자원봉사 등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죽음 대처 유능감이 장기 기증 경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매장에 대한 선호와 같은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다.

죽음 대처 유능감은 스스로의 죽음에 대처하는 자신감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까운 타인의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상실은 연령과 상관없이 전 생애에 걸쳐 경험될 가능성이 있다. Neimeyer(2001a)는 이러한 타인의 죽음에 대한 애도 과정이 자신의 대처 역량(capacity to cope)을 발견하게 하고 삶의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스스로의 죽음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타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상실 경험에 대처하는 죽음 대처 유능감의 관계성에 대한 후속 연구를 실시하는 것은 죽음 대처 유능감에 대한 더욱 포괄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죽음 공포 뿐만 아니라 죽음 수용과 죽음 대처 유능감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죽음 관련 변인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죽음을 연구하는 기존 연구들은 죽음 공포를 비롯한 죽음 태도 측정치들을 주로 불안과 우울 같은 변인들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비해서, 본 연구는 죽음 태도가 죽음에 대처하는 자신감인 죽음 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Fry(2000)는 죽음 공포와 자기 효능감의 관계성이 밝혀진다면 자기효능 신념을 강화함으로써 죽음 공포를 줄이는 예방적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으며, Bandura(1993)나 Meichenbaum(1994)과 같은 연구자들은 그러한 영역 특정적(domain-specific) 자기 효능 신념이 수정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본 연구의 죽음 대처 유능감이 자기 효능감과 동일한 개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아통합감을 증진시키고 죽음 수용적 태도를 높이는 죽음 준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년기 죽음 대처 유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시사점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기백서(1996).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의 표준화 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 35(2), 298-307.

- 김지현, 민경환(2005). 청년 집단의 죽음 공포와 죽음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2), 11-36.
- 유 경, 민경환(2005). 정서 대처 양식과 정서 인식이 장노년기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4), 1-18.
- 유태용, 김명인, 이도형(1997). 5오인 성격 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 산업 및 조직 심리학회지*, 10, 85-102.
- 윤진(1985). *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훈진, 원호택(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 개념, 자의식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95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77-290.
- 한성열(1990). 노년기 회상에 관한 성차 연구: 시간적 투자와 회상의 기능 및 내용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논총, 20, 57-76.
- 홍주연(2000). 성격과 자아통합감이 노인 회상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Aday, R. H. (1984). Belief in afterlife and death anxiety: Correlates and comparisons. *Omega*, 15, 67-75.
- Bandura, A. (2000). Exercise of human functioning through collective efficac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3), 75-78.
- Berman, A., & Hays, J. E.(1975). Relation between death anxiety, belief in afterlife, and locus of contro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318-321.
- Bugen, L. A. (1980-81). Coping: Effects of death education. *Omega*, 11, 175-183.
- Butler, R. N. (1963). The life review: An interpretation of reminiscence in old age. *Psychiatry*, 26, 65-76.
- Cicirelli, V. G. (1999). Personality and demographic factors in older adults' fear of death. *The Gerontologist*, 39, 569-579.
- Collett, L. J., & Lester, D. (1969). The fear of death and the fear of dying. *Journal of Psychology*, 72, 179-181.
- Dattel, A. R. & Neimeyer, R. A. (1990). Sex differences in death anxiety: Testing the emotional expressiveness hypothesis. *Death Studies*, 14, 1-11.
- DePaola, S. J., Neimeyer, R. A., Lupfer, M. B., & Fiedler, J. (1994). Death concern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in nursing home personnel. In R. A. Neimeyer (Ed.) *Death anxiety Handbook*, (pp. 201-216). Washington DC : Francis & Taylor.
- Drolet, J. L. (1990). Transcending death during early adulthood: Symbolic immortality, death anxiety, and purpose of lif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6, 148-160.
- Durlak, J. A.(1994). Changing death attitudes through death education. In R. A. Neimeyer (Ed.) *Death anxiety Handbook*, (pp. 243-260). Washington DC : Francis & Taylor.
- Epting, F. R., & Neimeyer, R. A. (1984). *Personal meanings of death* Washington DC: Hemisphere.
- Erikson, E. H.(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Norton.
- Feifel, H. (1990). Psychology and death. *American Psychologist*, 45, 537-543.
- Florian, V., & Kravetz, S. (1983). Fear of personal death: Attribution, structure, and relation to religions belie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600-607.
- Fortner, B. V., Neimeyer, R. A., & Rybarczyk, B. (2000). Correlates of death anxiety in older adults: A comprehensive review. In A. Tomer (Ed.), *Death attitudes and the older adult: Theories, concepts, and applications* . (pp. 95-108). New York: Brunner-Routledge.
- Fortner, B. V., & Neimeyer, R. A. (1999). Death anxiety in older adults: A quantitative review. *Death Studies*, 23, 387-412.
- Fry, P. S. (2001a). Predictors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perspectives, self-esteem, and life

- satisfactions of older adults following spousal loss: An 18-month follow-up study of widows and widowers. *The Gerontologist*, 41, 787-798.
- Fry, P. S. (2003). Perceived self-efficacy domains as predictors of fear of the unknown and fear of dying among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18, 474-486.
- Gesser, G., Wong, P. T. P., & Reker, G. T. (1988). Death attitudes across the life spa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Death Attitude Profile. *Omega*, 2, 113-128.
- Jeffers, F. C., Nichols, C. R., & Eisdorfer, C. (1961). Attitudes of older persons toward death. A preliminary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16, 53-56.
- Keller, J. W., Sherry, D., & Piotrowski, C. (1984). Perspective on death: A developmental study. *Journal of Psychology*, 116, 137-142.
- Krause, N. (1993). Measuring religiosity in later life. *Research on Aging*, 2, 170-197.
- Kübler-Ross, E. (1969). *On death and dying*. New York: Macmillan.
- Kübler-Ross, E., & Kessler, D. (2000). *Life Lessons*. New York: Scribner.
- Markides, K. S. (1983). Aging, religiosity, and adjustment: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Gerontology*, 38, 621-625.
- Neimeyer, R. A. (1994).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Peterson, S. A. & Greil, A. L. (1990). Death experience and religion. *Omega*, 21, 75-82.
- Robbins, R. A. (1994). Death Competency: Bugen's coping with death scale and death self-efficacy. In R. A. Neimeyer(Ed.) *Death Anxiety Handbook*, (pp. 149-179). Washington, DC : Taylor & Francis.
- Tomer, A. (1994). Death anxiety in adult life: The practical perspectives. In R. A. Neimeyer (Ed.), *Death Anxiety Handbook*, (pp. 3-28).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Wong, P. T. P., Reker, G. T., & Gesser, G. (1994).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attitudes toward death. In R. A. Neimeyer(Ed.) *Death Anxiety handbook*, (pp. 121-148).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Predictors of Death Attitude and Death Competency among the Elders

Ji-Hyun Kim  
Hallym University  
Institute of Aging

Kyung-Hwan Min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research is aimed at exploring the variables that are related to death attitude and death competency and examining the influence of death attitude on death competency. The purposes of the present research are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demographics, personality, and ego-integrity on fear of death and death acceptance among the elders. Another purpose of the present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death attitudes on death competency. Therefore, the multivariate analyses of the variance were conducted using 96 older adults, aged 61-86, to examine the influence of death attitude on death competency. Findings from a series of stepwise 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at demographics and personality factor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explained variance in death attitude in the elders. With regard to death competency, conscientiousness among personality factors and ego-integrity were significant predictors. Also, the result showed that death fear and death acceptance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death competency. In summary, findings from the present research confirmed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demographics, personality factors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indices on death attitude among the elders. Furthermore, the result supported the underlying assumption that death attitude, consisted of death fear and death acceptance, is a significant predictor on death competency. A number of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present research were acknowledged and the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focusing on their practical importance on death education were discussed.

*Keywords* : death attitude, death fear, death acceptance, death competency, personality factors, demographics, ego-integrity

1차원고 접수일 : 2009년 12월 10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0년 2월 21일  
게재 확정일 : 2010년 2월 22일